

## 관상동맥 우회술 (CABG)과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확장의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CABG and PTCA)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학교실

김종욱·송 현·이재원·서동만·송명근

[목적]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상동맥질환의 치료로서 PTCA와 CABG가 시행되고 있는바, 이 두 시술 환자의 비교 연구를 통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를 밝히고, 시술 결과에 따른 향후 치료방향의 지침을 정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5년 1월부터 1995년 8월까지 본원 순환기 내과와 흉부외과에서 실시한 371례의 PTCA와 CABG의 운전 진단 및 병별 혈관수, PTCA의 시술수 및 CABG의 문합수를 비교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관찰하였다.

[결과] PTCA의 경우 남녀 성비는 남자 284명 (75%), 여자 93명이었고, CABG의 경우 성비는 남자 72명 (81%), 여자 17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PTCA가 57.64세 ( $\pm 10.30$ , 29~85), CABG가 58.97세 ( $\pm 8.78$ , 39~83)로 두군이 비슷했다. 한편 위험인자로는 두군 모두 흡연 (41.83%)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고혈압 (24.28%), 비만 (17.10%), 당뇨 (16.79%) 등의 순서를 보였다. 술전 진단에 따르면 PTCA의 경우 unstable angina가 140명, stable angina가 69명, acute MI가 69명, post MI가 45명, variant angina가 2명, 기타 52명이었으며, CABG의 경우 unstable angina가 50명, PMI angina가 22명, failed PTCA가 9명, unstable angina with valvular disease가 3례, PMI angina with valvular disease가 5례, 재수술이 1례 있었다. 시술전 병변 혈관의 수에 있어서는 PTCA의 경우 단일혈관이 대부분이었고 CABG의 경우 좌주관 상동맥질환이 16례, 단일혈관이 1례, 2혈관이 32례, 3혈관이 40례이었으며, 이에 따른 PTCA시술은 환자당 평균 1.34회였고, CABG의 원위부문합의 수는 평균 4.28 ( $\pm 0.8$ )개였다. 한편 CABG시술시 IABP의 사용은 14례가 있었다. PTCA와 CABG 후 사망 및 합병증을 비교해 보면, 두군에서 모두 사망은 없었고, PTCA의 경우 major dissection이 41례, occlusion이 9례, MI가 6례, fail이 39례였으며, CABG의 경우 postop. bleeding이 5례, minor wound problem이 8례, perioperative MI가 2례 있었다.

[결론] 심장센터 개소이후 내과와의 원활한 협조와, 수술팀의 완벽한 조화, 자유로운 IABP의 사용, 전문 마취의사의 협조 등으로 CABG의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여 CABG가 더 이상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 아니며 향후 관상동맥질환의 치료에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